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18~2008)의 번역 수용과 반공, 문화냉전 그리고 민족

李炘宣*

- | | |
|----------------------------------|--------------------------------|
| I. 들어가며: 반체제 작가, 파스테르나크와 솔제니친 | III. 소련 추방(1974)과 극단적 반공주의자 |
| II. 사회주의자의 체제 비판과 노벨문학상 선정(1970) | IV. 소련 해체, 러시아 귀환(1994)과 민족주의자 |
| | V. 나가며 |

• 국문초록

이 글은 20세기 소련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솔제니친(1918-2008)의 통시적 수용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제니친은 『닥터 지바고』(1957)의 작가 파스테르나크(1890-1960)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대표적인 반체제 작가로 꼽힌다. 소련 당국의 위협으로 파스테르나크는 노벨문학상 수상(1958)을 거부했고, 솔제니친은 노벨상(1970)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4년이 지나서야 수상할 수 있었다. 이 이력이 세계적 문화냉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되었다. 반공-분단국 남한에서 솔제니친은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요컨대 이 글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한국에 알려진 1962년부터 2010년대까지 통시적 수용사를 究明하는 번역문화사 연구의 기획이다.

주제어 : 노벨문학상, 파스테르나크, 반공주의, 문화냉전, 민족주의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I. 들어가며: 반체제 작가, 파스테르나크와 솔제니친

이 글은 20세기 소련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Aleksandr Isayevich Solzhenitsyn, 1918.12.11.~2008.8.3)의 통시적 수용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제니친은 『닥터 지바고』(1957)의 작가 보리스 레오니도비치 파스테르나크(Boris Leonidovich Pasternak, 1890~1960)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대표적인 반체제 작가로 꼽힌다. 파스테르나크는 『닥터 지바고』로 1958년 노벨문학상에 선정되고, 솔제니친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1962)와 『암병동』(1968) 등으로 1970년 노벨문학상에 선정되었다. 한국전쟁을 겪고 냉전 질서가 고착화되어가던 한국에서 이들이 수용됐을 때 반공문학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닥터 지바고』는 청목 정선세계문학, 일신서적의 세계명작, 다락원(1989), 범우사 범우비평판세계문학선(1999), 동서문화동판(2016), 문학동네(2018), 민음사(2019)에서 판매하고 있고, 솔제니친의 작품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일신서적, 청목, 소담, 문예출판사, 민음사), 『암병동』(일신서적, 홍신문화사, 민음사), 『수용소 군도』(열린책들) 등이 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명 외국문학에 비해 인기가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이념 대립의 시대가 아니다. 그동안 대중의 감수성도 바뀌고 소련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닥터 지바고』(1957)는 1958년 한국에 번역 소개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출판사의 노벨수상작 출간 경쟁의 시초가 되었다. 1968년 수입된 영화는 1990년대까지 4번 이상 상영되고 TV에 여러 번 방영된 명작영화였다. 솔제니친의 첫 작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1963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되었고 1974년에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군도』 등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반공-분단국 남한에서 적대 국가에 대한 궁금증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두 작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의 인물이었다. 소련 당국의 위협으로 파스테르나크는 수상을 거부했고, 솔제니친은 상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4년이 지나서야 수상할 수 있었다. 이 이력이 세계적 문화냉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당대적 맥락과 세계적 분위기를 한국에서 솔제니친의 번역 수용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파스테르나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닥터 지바고』는 솔제니친과

결부돼 읽혔다. 가령 동화출판공사는 1970년, 1972년, 1977년, 1980년에 걸쳐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를 묶어서 세계문학전집을 꾸렸다.¹⁾

파스테르나크의 한국적 수용은 밝혀져 있다.²⁾ 솔제니친이 한국 사회에 미친 문학 적·문화적 영향이 궁금하다. 원래 유명한 시인이었던 파스테르나크는 1960년에 사망하면서 대표 소설은 『닥터 지바고』 한 편이지만 그보다 28년이 어린 소설가 솔제니친은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다. 솔제니친의 통시적 수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삶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1918년 12월 11일 솔제니친은 러시아 카프카스 키슬로보츠크 시에서 아버지 이사키 세묘노비치 솔제니친과 어머니 타이시야 자하로브나 세르바크 사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1923년 남러시아 돈 강 유역 로스토프로 이주한 그는 그곳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후 1936년 로스트프 시에 있는 10년제 중등학교 졸업하고 로스트프 대학 물리 수학과에 입학했다. 1941년 대학을 졸업하지만 문학에 관심이 많던 그는 모스크바 문학예술 대학에 다닌다. 동년 6월 22일 독소전쟁이 발발해 입대 신청을 했으나 서류상 문제로 입대가 지연된다. 10월 8일 입대하여 처음엔 수송대 소속인 마필계에 근무하다가 1942년 11월 1일 포병 장교학교에 들어가 포병중대장이 된다. 1943년 오를 시를 점령한 공훈으로 솔제니친은 조국전쟁 제2급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1945년 2월 9일 포병 대위였던 그는 친구 니콜라이 비트케예비치와의 서신에서 스탈린과 체제를 비판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다. 동년 7월 27일, 형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소련방 내무인민위원회 부설 특무 회의결의로 8년 강제 노동형과 3년의 유형이 선고된다. 다음해 7월, 그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류반카 수용소에 수감된다. 이곳에서 9개월을 지낸 다음 그는 마브리노에서 죄수 과학자로 5년을 보낸다. 나머지 형기의 3년은 모스크바에서 3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탄광 지대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광부, 석공, 주물공 등으로 일한다. 이때의 생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배경이 된다. 1952년 2월 12일, 수용소 병원에서 서혜부

1) 파스테르나크/솔제니친, 이동현·오재국 역, 『세계의文學大全集, 醫師 지바고·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同和出版公社, 1971.

2) 이형선·양아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한국적 수용과 '닥터 지바고'·노벨문학상, 솔제니친, 반공주의, 재난사회」, 『정신문화연구』 1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94~223면.

악성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1953년 2월, 솔제니친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석방되고 유형자 신분으로 카자흐스탄 발히슈 호 남서쪽 코크테레크로 영구추방 되어 거주 제한을 당한 채 교사로 일한다. 이때부터 그는 작품을 쓰기 시작한다. 1955년에는 위 종양이 발생해 타슈켄트 병원에 입원해 암센터에서 치료한다.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암병동』 등에 나타난다. 1956년 흐루쇼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의 혜택을 받아 석방되었는데 다시 1년 후에는 ‘범죄 사실 없음’ 판정을 받아 시민으로서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1959년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의 원고가 완성된다. 1961년 제2차 공산당 대회 이후 『노비 미르』의 편집장이던 트바르도프스키가 원고를 보고 극찬을 했다. 편집장이 흐루쇼프를 설득하여 1962년 『신세계』(노비 미르) 11월 호에 작품을 발표하자 솔제니친은 일약 대작가로 부상하게 되며 소련작가동맹에 가입한다. 그러나 1964년 10월 흐루쇼프 실각 이후 브레즈네프의 등장으로 소비에트 사회는 다시 얼어붙었다. 1966년 「암병동」을 『노비 미르』에 보내지만 이해부터 사실상 그의 작품은 출판금지 처분을 받는다. 1968년 『암병동』과 『제1원』의 자가판본, 『수용소 군도』의 원고가 서방으로 유출되어 『암병동』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출간된다. 동년 12월, 그는 프랑스에서 '최우수 외국소설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1968년 소련당국은 솔제니친을 작가동맹에서 추방했으며 1969년 11월 4일 반소 작가로 지목해 소련작가동맹에서 제명한다. 1970년 10월 8일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했으나 소련 정부의 방해로 그는 참석하지 못한다. 기록문학 『수용소 군도』 일부가 1973년 12월 20일 프랑스에서 출간된다. 이 일로 1974년 2월 13일 소련 당국에 의해 체포·투옥되었다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추방명령을 받아 그는 독일로 추방된다.

1976년 미국으로 망명한 솔제니친은 버몬트주 캐번디시에 살면서 『붉은 수레바퀴』의 집필에 매달렸다. 그는 1994년 5월 20여 년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아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다. 2007년 6월 러시아는 그에게 예술가들의 최고 명예상인 국가공로상을 수여하였다. 다음해 8월 3일 솔제니친은 모스크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처럼 상술한 이유는 솔제니친의 작품이 자서전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노벨상 선정, 소련 추방, 러시아 귀국 등이 중요한 생의 변곡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는 1970년, 1974년, 1994년에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파스테르나크가 1960년 사망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탄압의 강도가 완화되며 복권되는 과정에서 ‘지바고 사태’에 대한 진실이 수십여 년에 걸쳐 조금씩 한국에 공개되었다면, 솔제니친은 현역 작가이자 생존한 당대인으로서 소련의 변화와 탄압의 증언자가 되어 매순간 한국에 알려졌던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1974년 소련 추방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1991년 소련 해체와 러시아 복귀(1994)를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삼아 시기 구분을 하여 한국 수용을 논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파스테르나크뿐만 아니라 솔제니친을 대하는 서방과 소련의 방식이 참조된다.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을 향한 각국의 시선이 한국 독자의 솔제니친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반공주의와 길항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주변 4강’의 인접국이면서도 정보가 극히 부족한 소련의 이미지를 조형하는 데 솔제니친의 문학이 미친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글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번역으로 알려진 1962년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통시적 수용사를 구명하는 번역문화사 연구의 기획이다. ‘수용소 작가’ 솔제니친의 증언 문학은 반공, 반소의 심리전뿐만 아니라 이념대결이 사실상 종결된 현재에도 북한의 수용소, 인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념 갈등 종식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한국 독자에게 읽혔을까.

II. 사회주의자의 체제 비판과 노벨문학상 선정(1970)

이 장에서는 1962년 공식 작가 데뷔부터 1974년 2월 소련에서 추방될 무렵까지 솔제니친의 한국 수용을 살펴본다. 1962년 『노비 미르』 11월호에 실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솔제니친의 첫 소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동년 12월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해당 작품은 다음해 2월 잡지 『사상계』에 요약 번역돼 실렸고³⁾ 동년에 사상계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⁴⁾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웬만큼 나가는 편’⁵⁾이었다. 그 이전 1958년 파스테르나크가 노벨문학상에 선

3) A. 솔제니친, 김학수 역,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일거요약전제」, 『사상계』, 1963, 380~394면.

4)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金鶴秀 譯,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思想界出版社, 1963.

5) 「如前히 번역물 ‘봄」, 『경향신문』, 1963.05.02, 5면.

정되어 『닥터 지바고』가 한국 출판사의 번역 경쟁 속에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1961년까지 많이 읽히는 상황이었다. 4·19혁명 이후 일본문학 붐이 일고 한일관계 개선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던 시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솔제니친의 소설은 소련에 대한 관심이 일본으로 옮겨가던 무렵의 번역 소개였다. 당시 소련에서 이 소설이 화제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을 포기해 더욱 유명해진 파스테르나크의 명성과는 비견될 수 없는 위치의 솔제니친이었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훨씬 강렬했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는 1905년 1차 혁명에서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1917년 10월 혁명에 이어 지바고가 사망하는 1929년이 시대적 배경이다. 작품의 핵심키워드는 혁명과 사랑이다. ‘파괴와 살육으로 얼룩진 러시아혁명의 시대에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의사 지바고의 러브 스토리’라는 게 이 소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다. 이처럼 이 작품은 러시아혁명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1958년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현의 픽션성이나 리얼리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파스테르나크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택한 서사 방식은 체제의 억압을 은유적으로 환기하는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독자가 러시아혁명의 실체와 역사의 변동과정을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⁶⁾

이에 반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1951년 새해를 배경으로 소련의 수용소의 하루 일과를 구체적이고 탁월하게 서사화한 중편소설이었다. 이는 『닥터 지바고』와 달리 본격적인 스탈린 집권 이후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문으로 존재하던 소련 수용소의 실체의 가시화는 냉전 질서를 감안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히 충격이었다. 9년째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인공 슈호프가 오전 5시에 기상해 6시 30분에 아침 점호를 하고 8시에 공사장에 입장해 오후 작업까지 끝나치고 복귀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9시에 취침 점호를 한 후 빨라야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일정이 소설 속 수용소의 하루다.⁷⁾ 이곳은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배고픈 수감생활뿐만 아니라 조국 소비에트에 버려진 ‘죄 없는 죄

6) 이행선·양아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한국적 수용과 『닥터 지바고』-노벨문학상, 솔제니친, 반공주의, 재난사회」, 『정신문화연구』 1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196면, 219면.

7) Solzhenitsyn, Aleksandr, 박형규·김학수·이동현 역,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외』, 신구문화사, 1966.

수'의 내막이 드러난다. 나라를 위해 독소전쟁에 참전했으나 나치의 포로였다는 이유로 스파이로 간주되고, 부농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으며, 영국 제독의 선물을 받아서 수감된 장교 등 다양한 사연이 소비에트 체제의 비인간성과 불합리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작가는 역설적으로 죄수들이 울분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오히려 25년 형기가 새롭게 생긴 1949년을 감안하여 1951년 1월 새해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은 다른 국가의 국민과 달리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소련 국민의 처지를 실감나게 폭로하고 있다. 이들 애국적인 인민이 소련의 국민이 아니라 스파이, 배신자, 반체제주의자, 반사회주의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솔제니친을 접한 한국 미디어와 독자는 당황하게 된다. 이 소설의 게재는 '철의 장막' 소련에서 당국을 비판하는 작품이 검열을 통과하고 출간된 '사건'이었다. 1956년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이 있었지만⁸⁾ '지바고 사태'를 이미 겪은 한국인은 자기비판적인 소설의 출현이 의아했다. 작품은 반공이나 반소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출간 자체가 소련사회의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반공국가들이 마냥 기뻐하며 문화냉전의 도구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는 외국에서 간행된 『닥터 지바고』와 전혀 다른 사례였다. 실제로 한국에서 처음에는 “문단을 쫓기시켜 스탈린의 악폐에 일대 수술을 가하려는 소련정부의 의도”⁹⁾라고 해석하여 작가의 열망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추상미술과 재즈 음악이 스탈린 시대보다 더 강한 압박을 받는 모습에서 모순적이고 혼란스런 예술정책이 감지되었다.¹⁰⁾ 어찌됐든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의 게재 허락은¹¹⁾ 과거 계급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했던 프롤레타리아 예술의 정치

8) 다음은 제22차 소련공산당대회에 흐루쇼프 '스탈린 격하' 연설 중에서 많이 인용되는 자기비판의 대목이다. 이는 체제비판이 반공이나 반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권력의 악용에 대한 사건들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일이다. 세월은 흐르고 우리들 모두는 사라질 것이며, 우리는 결국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밝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밝혀야 하며 …… 이와 같은 비극이 앞으로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영의 역,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3)『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민음사, 1998, 214면.

9) 「蘇,反스탈린運動 계속 文學誌 동서惡弊를 暴露」, 『경향신문』, 1963.01.21, 5면.

10) 「自由에 눈돌리는 蘇聯의 知性 藝術政策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동아일보』, 1963.2.25, 5면.

11) “흐루쇼프는 이반 데니소비치를 농민으로 규정했고, 이반의 이미지를 '건축자재를 절약하는' 유용한 노동자로 간주하며 이 작품에 찬사를 보냈다.” 에드워드 J 브라운, 김문황 역, 『솔제니친과

도구화의 해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탈피를 환기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번역자이자 러시아문학 연구자인 김학수는 솔제니친을 소련 해방기 문학 시대 자유주의 문인으로 분류하면서 이 신진 작가와 당국의 이후 관계를 궁극해 했다. 흐루쇼프의 반스탈린 운동에 따라 분출할 수 있었던 비판적 목소리가 어느 한계를 넘어설 때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지가 주목되었다.¹²⁾ 결국 소련 당국의 통치성과 비판적 문학자의 길항 관계가 소련 사회의 성격과 변화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였던 것이다.

이 관계가 구체화되어 한국에 전해진 것은 1960년대 말이었다. 솔제니친은 『암병동』을 둘러싸고 1968년 당국과 충돌했다. 소련 정부가 『암병동』의 국내출판을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전출판을 피하려 하자 솔제니친은 당국이 『닥터 지바고』처럼 반소 선전을 위해 이용된다는 트집을 잡아 국내출판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소련당국 자는 ‘암병동’이 소련 전체가 도덕적·정치적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풍자했다.”는 입장이었다.¹³⁾ 결과적으로 국내 출판을 못하게 되자 이 소설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출간되었다. 작가는 동년 12월 프랑스에서 최우수 외국소설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반소작가로 지목되어 소련작가동맹에서 제명되면서 작품 출간이나 작가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그 시기 한국에는 솔제니친이 제명되고 나서 소련작가동맹에 보낸 공개장의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¹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방 작가들이 박해 중지를 호소하고¹⁵⁾ 유럽작가협의회가 소련작가동맹에 강하게 항의하자 소련작가동맹은 1970년 2월 유럽작가협의회를 탈퇴해 버린다.¹⁶⁾ 이러한 분위기에서 동년 7월 20일 약 백 명의 저명한 프랑스 작가 및 예술가들이 솔제니친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의하는 일이 벌어진다. 3개월 후 10월 8일 실제로 솔제니친은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었다. 이 수상에 작품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한 셈이다. 이에 반발한 소련 정부는 수상을 위해 출국하면 다시

수용소 서사시], 『현대 러시아 문학사 : 침묵과 저항』, 충북대학교출판부, 2012, 441면.

12) 김학수, 「소련 문학계의 새 소동-이반 제니쓰비치의 하루와 솔제니친」, 『사상계』, 1963.2, 379면.

13) 「蘇聯의 새로운 知識人 彈壓」, 『경향신문』, 1968.5.29, 5면.

14) 「당신들의 時計는 늦다」, 『동아일보』, 1969.11.22, 2면.

15) 「西方작가31명 호소 솔제니친迫害중지」, 『경향신문』, 1969.12.19, 2면.

16) 「蘇作壇 다시 結氷 유럽作家協議會서脫退」, 『동아일보』, 1970.03.07, 5면.

귀국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솔제니친은 선배인 파스테르나크처럼 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스톡홀름에 갈 수 없었다.

‘솔제니친 사태’는 한국 독자에게 ‘지바고’를 연상케 했다. 작가동맹의 제명, 소련의 압력으로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파스테르나크와 비교되는 솔제니친의 수상 결심은 솔제니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련이 여전히 자유와 예술을 억압하는 독재국가라는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방증했다. 과거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출간될 때의 소련의 일부 긍정적 이미지는 소거되었다. 이는 1967년 5월 소련작가동맹이 파스테르나크를 부분 복권하여 일부 시집 출간을 허용했던¹⁷⁾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스테르나크보다 솔제니친이 훨씬 체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상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68년 말 영화 <닥터 지바고>가 수입돼 상영되었는데 주제곡 ‘라라의 테마’와 함께 영화는 한국 관객을 반공영화가 아니라 소련의 아름다운 초원과 설원(雪原),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에 빠져들게 했다. 이 무렵부터 『닥터 지바고』가 한국에서 멜로드라마적으로 수용되는데, 그 대신 솔제니친의 작품이 반소와 반공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1970년경에 이르러 한국에서 솔제니친은 과거의 신인작가, 고발작가가 아니라 파스테르나크를 잇는 소련의 대표적 저항작가, 러시아의 양심, 반체제작가, 반공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현대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최고의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본격적으로 그의 작품이 소개된 것은 1970년 말 노벨문학상 선정 직후부터다. 과거 『닥터 지바고』의 출간에서 시작된 한국 출판사의 노벨상 번역 경쟁이 여전히 재현됐다. 사상계사, 대양사, 동아출판공사, 대정출판사, 문예출판사, 지문각, 서정출판사 등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번역 출간에 뛰어 들었다. 이 소설은 1971년 『노벨문학상전집』(신구문화사)에 포함되었으며, 『암병동』이 홍익출판사와 정음사에서 나왔다. 이 무렵에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암병동』보다 더 많이 번역되었는데 1974년 2월 소련에서 솔제니친이 추방된 이후에는 1973년 1부가 나온 『수용소 군도』가 1974년 번역되었다.¹⁸⁾

17) 「故 파스테르나크에 9년 만에 死後復權」, 『동아일보』, 1967.5.23, 4면.

18) 솔제니친의 작품이 프랑스에서 많이 발간되어 한국의 초기 번역본 일부에 불어판이 있지만, 번역 수용 초기부터 솔제니친의 작품은 김학수, 이동현, 오재국, 동완 등 러시아문학 연구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솔제니친의 작품이 한국에서 1974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것은 추방의 영향이다. 소련 추방 이후 『수용소 군도』가 번역되기 전까지 1974년 전반기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베스트셀러였고 번역 출간 이후에는 『수용소 군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1974년에야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현상은 노벨문학상 수상(1970)보다 추방 소식이 한국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 무렵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1971년에는 닉슨이 중공을 방문해 동서해빙 무드가 형성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련 반체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세계가 주목한 솔제니친의 문학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암병동』의 주제로 소련작가동맹에서 제명된 것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보다 『암병동』이 더 지배세력에게 거슬렸다는 것을 함의한다.¹⁹⁾ 더 나아가 솔제니친의 사유가 반체제적이라면, 그가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을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암병동』(1968)²⁰⁾은 제목 그대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의 다양한 중증환자의 목소리를 통해 소련 사회의 실상을 가시화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용소 출신이거나 관련자라는 점에서 수용소의 내부를 다룬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마찬가지로 ‘수용소 문학’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1951년 1월 새해라면, 『암병동』은 1955년 이른 봄이 시간적 배경이다. 전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수감된 정치범의 불만을 드러낸다면, 『암병동』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강압적 분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스탈린 체제를 회고하고 평가한다. 확연한 차이라면 전자는 슈호프 한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암병동』은 주인공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인물이 번갈아 가면서 목소리를 내는 서사방식이다. 그럼에도 20년 넘게 수용소에 사람을 수감시키는 조서관 역할을 한 루사노프와, 수용소를 겪고 영구추방 돼 유형지에 있다가 병원에 온 코스토글로토프(본명: 올레크 필리모노비치, 1920년생)를 대비적으로 설정해 입장의

19)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17일 소련내에서의 정치적 불평분자들이란 ‘소련 인민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의 암시를 사용하는 소수의 극단주의자들 및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라고 비난했다. …… 이 논설은 「암병동」과 같은 「솔제니친」의 쓰레기 작품이 조국의 업적을 외면하고 소련 국민의 위신을 떨어뜨려 서방 측의 반공운동의 적절한 자료가 되었다고 말했다.” 『蘇, 솔제니친 猛烈히 攻撃』, 『동아일보』, 1970.12.18, 4면.

20) A. 솔제니친, 동완 역, 『암병동』, 홍익출판사, 1970.

차이와 갈등을 구체화하는 게 작품의 기본 골격이다.

수용소와 유형 생활을 한 작가의 이력을 감안하면, 코스토글로토프나 그보다 한 세대 위인 솔루빈이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등장인물이다. 전자가 억울하게 체포된 죄수를 드러낸 것처럼, 『암병동』에서 코스토글로토프도 대학 1학년 때 친구들과 스탈린을 비판하는 사람을 나누다가 체포되어 정치적 추방자가 된 인물이다. 그러나 전자가 아직 수용소 생활 중이라면 『암병동』의 이 인물은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유형지에 갔지만 암에 걸려 목숨을 위협받는 차이가 있다. 전자가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다룬다면, 『암병동』은 죽음에 직면하여 생존을 넘어 인생과 삶, 사상을 반추하는 사유를 다룬다.

그래서 작가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보다 『암병동』에서 하나의 설정을 더한다. 대표적으로 예프렘은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으면서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사색한다. 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으로 이어진다. 즉 작가는 체제의 피해자가 ‘자신의 내면과 인간의 본질을 사색’하는 예와 ‘자신 밖의 사회체제를 사색’하는 예를 양면적으로 제시한다. 내면으로 침잠하는 예프렘과 달리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코스토글로토프가 상반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인 소련에서 그들을 암으로 내몬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과 결함을 사유하고 결함을 꿰뚫는 솔루빈과 코스토글로토프’가 체제협력자 루사노프와 말다툼을 하는 방식으로 체제의 억압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코스토글로토프에 따르면 소련 체제는 하얀 손의 공산당원이 굳은살이 밴 노동자의 출신 성분을 심문하고, 평등사회를 내세우면서도 임금 차이가 확연하며,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계급의 사람이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부르주아 의식을 추궁하는 일이 구조화된 사회다. 대학교수였던 솔루빈은 이러한 현실에서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과 타협한 지식인의 비굴함과 수치심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솔루빈은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며 ‘중요 기반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도덕적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임금 차이는 인정된다고 외치는 체제협력편 환자들을 향해 레닌의 ‘4월 테제’가 반박의 논거로 제시된다. 이는 스탈린보다 레닌주의가 존중되고 근거로 활용된 예이다. 또한 금욕적이고 절제된 ‘도덕적 사회주의’는 러시아 정교회를 신봉하는 작가의 정신적 지향을 투사한 결과물이다. 특히 사실상 주인공격인 코스토글로토프는 오랜

수용소 수감 경험으로 인해 맹목적으로 체제를 따르고 규칙에 복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인물이다. 1920년생인 그는 작가와 같은 세대이기도 하다. 수감 이후 그는 소련의 삶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싶어 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 협력자 루사노프는 체제를 의심하거나 자기 실수를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수감자였던 코스토글로토프는 인간은 ‘생각’을 해야만 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존재라고 외친다. 이런 메시지를 독자에게 주기 때문에 소련 당국과 작가동맹은 『암병동』을 반소·반공적인 작품으로 판단해 작가동맹에서 작가를 제명하고 해외 이주를 공개적으로 권했으며 몇 년 후 『수용소 군도』가 프랑스에서 출간되자 아예 추방시켜 버린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 1963년 처음으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번역 소개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읽히기는 했지만 고발 작가 솔제니친은 신진작가였다. 파스테르나크가 훨씬 유명한 반공작가였다. 『암병동』을 둘러싼 갈등이 1968년경 전해지기 시작했으며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작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로 고발작가, 수용소 작가였다면, 1970년 번역된 『암병동』에서 솔제니친은 단순히 반소·반공작가가 아니라 강렬한 저항 정신과 개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전통적인 비판정신²¹⁾ 계승한 소련 작가로 호명되었다. 그의 스탈린 체제 비판은 반애국적인 것이 아니며 조국을 위한 제언이 된다. 스웨덴 한림원도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로 “솔제니친은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추구하면서 도덕과 정의의 힘을 갖춘 작가”를 들었다. 반소나 반공을 한다고 해도 혁명 이전 러시아(인)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가 위대한 작가로 존중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처럼 1970년부터 솔제니친의 문학세계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번역·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애국적인 소련인의 자국 비판 및 체제비판이 전면적인 반소가 아니라는 사실이 한국 독자에게도 인지되었다.²²⁾ 그래서 1974년 추방되기 전까지 솔제니친은 반체제적이지만 노벨상 수상을

21) 솔제니친, 박형규·김학수·이동현 역, 『노오벨賞文學全集12,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편』, 新丘文化社, 1971, 372면.

22) “파스테르나크도 솔제니친도 모두 모국으로부터의 추방을 무엇보다 무서운 형벌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국가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그 나라에 대한 애착심과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예는 소련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愛國心のX要素」, 『동아일보』, 1973.10.09, 3면; “소련사회에 남아있는 스탈린주의, 인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록자로

위해 출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조국을 사랑하는 양심적 작가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문제는 두 소설이 소련 체제를 강하게 고발하지만 시대적 배경 설정상 ‘스탈린 비판’으로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당시 ‘반체제 작가’, ‘수용소 작가’ 솔제니친은 반공주의자와 그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은 ‘스탈린을 비판하는 사회주의자’(레닌주의자), 도덕적 사회주의자라는 평가 역시 많이 받는 상황이었다.

Ⅲ. 소련 추방(1974)과 극단적 반공주의자

이 장은 솔제니친이 1974년 소련에서 추방될 때부터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는 시기까지 다룬다. 잘 알려진 대로 그의 추방은 1973년 12월 20일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수용소 군도』가 프랑스에서 출간되면서 촉발되었다. 1970년에 이미 작가동맹에서 솔제니친이 스스로 소련을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당국이 직접 움직인 계기는 『수용소 군도』의 외국 간행이었다. 한국에서도 1974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뉴욕타임즈』가 발췌, 게재한 영역본을 7회에 걸쳐 수록했다.²³⁾ 동년 2월 13일 체포되어 솔제니친이 독일로 추방당하자 경향신문은 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솔제니친이 태어나 강제노동 8년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는 부분까지의 자서전을 22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다.²⁴⁾ 이처럼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새로운 소설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번역된 『솔제니친의小品과 외침』,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1974년 전반기 베스트셀러가 됐고, 김학수의 번역본이 나오자 『수용소 군도』가 1974년 후반기의 베스트셀러 목록 2등에 올라간다. 앞에서 솔제니친은 한국에서 1970년, 1974~1975년, 1994년에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된다고 했는데 1974년은 그 두 번째 시기였다.

서는 솔제니친이 바람직한 존재이지만 소련사회를 박차고 떠나지 않고 있는 ‘솔제니친’의 태도에 대한 망명작가단의 당혹과 그를 노어로 읽지 못하는 서방 평론가들의 뒤뜰린 적의가 섞여 있다.”
『藝術』이라기보다 政治的神話 - 솔제니친의 作品세계, 『경향신문』, 1973.09.13, 5면.

23) 「수용소 군도」(1~7), 『경향신문』, 1974.1.4-1.11.

24) 「抵抗의 生涯 솔제니친傳記 (1-22)」, 『경향신문』, 1974.2.18-3.18.

한국에서 1974년은 문인간첩단사건, 민청학련사건, 김지하가 연루된 인혁당사건, 동아일보 탄압 등이 있었던 해로 박 정권의 탄압이 가장 극심하던 때였다. 울릉도간첩 단사건(1974.3.15)이 일어나고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하면서 반복 감정도 고조되었으며 반공영화와 반공드라마 등이 적대적 분위기를 더욱 조장했다. 『전환시대의 논리』의 리영희가 등장한 이 시기에 문학시장에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 『레마르크 전집』(범조사, 6권), 빅터 E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25시』 등이 출간되고 있었다. 전쟁문학과 망명작가의 작품이 이 무렵 붐이었는데, 특히 솔제니친 처럼 제2차 세계대전 및 수용소와 관련된 문학으로서 먼저 한국에서 주목받은 것은 『25시』(1949)의 작가 게오르규였다.

루마니아 출신 프랑스 망명작가 게오르규의 해당 작품은 1952년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된 이래 줄곧 스테디셀러였다. 1967년 12월 영화 <25시>가 상영돼 1970년 앵콜 재상영 되고 소설이 다시 베스트셀러 되어 작가 게오르규가 1974년 3월 20일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 농민이 제2차 대전에 말려들어 애처와 이별, 8년 동안을 강제노동으로 포로수용소를 전전, 비참을 극한 상황속에서도 아내와 어린아이들에의 애정에 몸부림치는 이야기”²⁵⁾라는 광고문구처럼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소련, 미국이 관련된 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전쟁의 참화를 다룬다. 이에 비취 독소전에 참전한 솔제니친은 자국인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집중해 수용소 시스템과 그 실상을 고발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1974년 방한한 게오르규는 예언자로서 시인(=문인)의 소명, 몰락해 가는 서구문명의 대안으로서의 한국/동양, 반공, 경제성장 상찬 등을 이야기했다. 한국을 루마니아와 동일시한 그는 한국인을 자신과 동일한 약소민족의 희생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서구와 달리 조화의 덕을 갖춘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추켜세운다. 그런데 게오르규는 2년 후인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이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발생 직후인 8월 22일 국제관광공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반공 강연을 한다. 자신이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사실이 한국인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었다.²⁶⁾ 루마니아 정교회의 사제이자 총대주교의 십자가를 받은 게오르규가 극렬한 반공 지식인으로 한국에 등장했다.

25) 「新正영화街」, 『경향신문』, 1967.12.29, 5면.

26) 이행선,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 지성사의 '25시' - 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9~41면.

그렇다면 그와 유사하게 러시아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 솔제니친은 1974년 소련 추방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인에게 다가왔을까?27) 그 무렵 리영희는 “솔제니친이 반(反)마르크스주의, 반혁명, 반사회주의, 반소비에트공화국연방적 이데올로기다. 솔제니친적 이데올로기의 바탕은, 제정 러시아의 구질서적 가치체계에 대한 충성이다. 전통적인 목가적 전원생활의 러시아 농민사회 질서와 그것의 물질적인 토대인 지주제 생산양식 및 그 정신문화적 지주인 기독교(러시아 그리스도교)로의 복귀에서 인간생활의 이상을 찾는다.” 이처럼 리영희는 솔제니친을 “종교적·전통적 대러시아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공주의자”로 분류했다.28) 소설 『암병동』을 통해 그동안 솔제니친을 도덕적 사회주의자로 생각한 한국 독자라면 러시아 정교회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대러시아주의’는 납득이 되지만 ‘반공주의자’라는 말에는 판단이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스탈린 비판은 확인되었지만 레닌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솔제니친이 추방되면서 그 목소리가 직접 서방에 전달되면서 한국의 독자는 소설의 범주를 넘어 인터뷰, 강연 기록, 논설, 책 등을 통해 당대의 사유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상 이후 사망할 때까지 그 행보가 계속해서 한국에 알려진 이례적 인물이기도하다. 그렇다면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1991년 소련 해체, 1994년 러시아 귀국할 때까지 그의 이념적 사유는 ‘소설’과 ‘직접 표현(발언, 글쓰기)’으로 대별해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974년 이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나 『암병동』과 달리 추방 이후 한국에서 솔제니친의 본격적인 문학세계는 『수용소 군도』, 『붉은 수레바퀴』 등으로 대표되는 기록문학이었다. 러시아혁명(1917) 무렵부터 1956년까지 피의 숙청과 공포의 테러정치를 고발한 『수용소 군도』는 총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부는 1973년 12월 파리 YMCA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3, 4부는 1974년, 5부에서 7부까지는 1976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1974년 김학수에 의해 1부가 번역되어 단행본이 나왔고 1988

27) “소련의 반체제자가 솔제니친의 작가적 양심이, 밋었던 전 세계의 심장을 고동케 한 이야기는 두고두고 말해도 끝이 없을 것만 같다. 붓 한 자루로 ‘초핵강대국인 소련을 위협 속에 몰아넣은’ 솔제니친은 그가 바로 無冠의 제왕이요, 붓의 영웅임을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김경수, 「소련의 1인 야당 솔제니친·수용소 군도를 읽고」, 『기독교사상』 17권 4집, 대한기독교서회, 1974.4, 94면.

28) 리영희, 「소련 반체제 지식인의 유형과 사상」(1975), 『리영희저작집2, 이상과 이성』, 한길사, 2006, 394~431면.

년에야 열린책들에서 완역본이 나왔다. 1, 2부가 체포 이후 감옥을 거쳐 수용소로 끌려가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3부 이후는 대부분 수용소 생활을 다루고 있다. 한국 독자는 1부를 번역한 김학수의 번역본을 1974년에 읽은 셈이다.

『수용소 군도』가 레닌부터 스탈린을 지나 해빙기 초기까지 다뤘다면, 『붉은 수레바퀴』는 러시아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기원을 탐색한 작품이다. 1976년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버몬트주 캐번디시에 살면서 1994년 러시아로 복귀할 때까지 『붉은 수레바퀴』의 집필에 매달렸다. 그 일부인 『1914년 8월』 제1부가 1971년 한국에 김학수에 의해 번역된 바 있다.²⁹⁾ 『1916년 11월』은 1986년 열린책들에서 완역되었다. 『수용소 군도』나 『붉은 수레바퀴』는 톨스토이의 장편 『전쟁과 평화』와 비견되었다.³⁰⁾ 추방 이전 현대의 도스토예프스키로 불렸던 그가 이제 톨스토이와 비교되었다. 이로써 19세기 두 대가를 한 몸으로 체현한 솔제니친은 20세기 최고의 소련작가로 인식된다.

문제는 두 작품이 긴 집필시기 만큼이나 엄청난 분량의 장편이다. 게다가 작가는 소련 인민에게 기록문학의 형식을 빌어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작업을 했지만 전혀 독자의 문해력을 고려하지 않고 육하원칙으로 쓰지도 않았다. 두 작품은 일반독자뿐만 아니라 러시아문학 전공자들도 쉽게 다 읽을 수 없는 책으로 정평이 났다. 외국인은 역사서를 읽고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붉은 수레바퀴』는 러시아혁명 이전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전공자가 아닌 이상 일반 한국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없었고, 『수용소 군도』는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를 읽은 독자라면 굳이 힘들여 수용소 생활을 또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국의 일반 독자에게는 솔제니친이 레닌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숙청과 체포를 다루고 작가 자신의 수감체험기를 포함한 1권만이 읽을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수용소 군도』 완역판은 1995년, 2017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되었지만 품절 및 절판되었고 1권짜리 김학수 번역본만 현재 판매되고 있다. 『붉은 수레바퀴』 시리즈 역시 모두 판매되지 않은 상태다. 결론적으로 추방 이후 귀환할 때까지 소설가로서의 솔제니친

29) “『1914년 8월』은 1차 대전이 발발하던 1914년 러시아가 동프러시아를 공격하다 후퇴하는 10일간(8월 10일-8월 21일)을 무대로 한 역사소설이고 3부작 중의 그 1부로 알려지고 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외대교수), (월간중앙 9월호 부록)『1914년 8월』, 중앙일보사, 1971.09.01, 7면.

30) 「솔제니친力作 「1914年 8月」 第1部 激賛속에 佛서 「亡命出刊」, 『동아일보』, 1971.07.06, 5면.

은 기본적으로 기록문학자이자 책 제목의 상징성으로 ‘수용소 작가’로 받아들여졌고 대중성은 거의 없었다.

힘들지만 김학수 번역본(『수용소 군도』)이라도 완독한 한국 독자라면³¹⁾ 솔제니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세대)을 “나의 동년대, 정확히 나와 동갑은 아니더라도, <10월 혁명>(1917)과 함께 태어나 1937년에는 10월 혁명 20주년 축하 행렬에 가까이 참여했고, 전쟁이 시작될 무렵엔 군대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전쟁 발발 후 수 주일 동안에 독일군에 의해 무참하게 분쇄된 <혁명동아>들이었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승리의 행진곡이 울려오는 형무소의 괴로운 봄은 나와 같은 세대에 대한 보복의 봄과도 같았다.”³²⁾ 이는 작가 자신이 ‘혁명동아’이자 열렬히 소련의 혁명과 레닌, 사회주의를 지지했으며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애국심을 증명한 세대라는 것을 함의한다. 드디어 『수용소 군도』를 통해 그 역시 체포 전까지 레닌을 지지한 사회주의자였다는 게 확인된다. 하지만 소련 당국은 수많은 자신의 세대를 배신자, 반역자, 반소·반공주의자로 몰아 형무소, 수용소, 유형지에 가두었다. 작가는 평등과 정의의 나라 소련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1945년 2월 체포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각에서 솔제니친은 ‘수용소 작가’가 된 것이다.

솔제니친은 『암병동』 후반부에서 병원 청소부 엘리자베타 아나톨리예브나의 입을 빌어 “어떤 문학 작품 속의 비극도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죠”, “내가 『안나 카레니나』를 왜 읽어야 할까요? 이것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 말이예요. 백 년이 지난 다음에나 나올까요?”³³⁾라고 말한다. 전쟁에 참여해 전공을 쌓지만 스탈린 비판으로 수감된 솔제니친은 수용소 체험을 통해 소련 시스템의 실체를 자각하게 되고 『암병동』에서 ‘도덕적 사회주의’를 일부 대안으로 제시했다. 체포 무렵 스탈린이 레닌에서 벗어났

31) 소설가 안수길도 『수용소 군도』를 읽고 영감을 얻어 「어떤 戀愛」를 썼다. “「어떤 戀愛」는 40여 년 전 만주 용정에 있을 때의 일을 기억을 더듬어 꾸며본 회고체 소설인데 주인공의 실연을 주제로 하면서 국가를 잃고 여기저기 유랑했던 민족의 운명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단편이다. 솔제니친의 「수용소 群島」에 나오는 연해주 방면의 수십만 겨레가 카자크스탄으로 강제유배 되었다는 것과 최근까지의 在日동포의 北送 등이 문득 떠올라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 『安壽吉씨 40년 전 滿洲 때 일 더듬어 「創作열중, 건강에도 좋아」, 『경향신문』, 1976.01.23., 5면.

32)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 (열린책들 세계문학18) 『수용소군도』(1973), 열린책들, 2019, 353면.

33)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영의 역, 『암병동』2, 민음사, 2019, 306~307면.

다고 생각했던 레닌주의자 솔제니친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세대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그의 이번 신작의 소재는 주로 스탈린 시대의 강제수용소가 중심이 돼 있으나 그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스탈린 시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스탈린 시대의 암흑상만 취급했던 들 스탈린이 죽은지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솔제니친」이 共產主義體制 그 자체를 통박한 것이다.

그는 소련 혁명 후 모든 반대자들에게 가차 없는 탄압을 단행한 사람이 「레닌」이라고 지적하고 레닌은 이같은 잔혹한 수법을 제정 러시아로부터 빌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제니친은 “만약 소련의 폭력조직을 도입한 사람이 레닌이었다면 스탈린은 이를 완성한 데 불과한 인물이다.”고 부르짖고 있다.³⁴⁾

그렇다면 레닌주의자 솔제니친이 체포와 수감을 거쳐 최소한 『암병동』 집필 시점에는 ‘도덕적 사회주의자’였던 것인가.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에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확장하여 레닌을 다루면서 당대 ‘스탈린 개인숭배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련 형벌시스템 전체를 통해 소련 사회주의 통치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레닌은 폭압적이고 통제·견제되지 않는 중앙 관료시스템을 구축한 책임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작가는 소련에서 1974년 추방당했다. 그럼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를 통해 레닌까지 비판했으니 도덕적 사회주의자에서 반공주의자로 바뀌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작가는 이 작품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그는 레닌이 내전 시기 이후에도 ‘재판 없는 제재’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비판적이지만 내전 시기와 완화정책 시기를 엄연히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1918년부터 나온 사회주의 변질자의 체포는 당연하며, 혁명은 훌륭하고 공정했으나 1929년 와서 그것을 망쳐놓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도 애초에 다민족국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는 부적합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솔제니친이 제정러시아 여건상 사회주의가 부적합했고 레닌이 제정러시아의 폭력적 시스템을 발전시켰지만 혁명은 일부 바람직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스탈린이 역시 더 비판받는다. 이처럼 『수용소 군도』를 살펴보면 솔제니친은 레닌을 여전히 일부 긍정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이다. 게다가

34) 「收容所群島」의 悲劇, 『동아일보』, 1974.01.10, 3면.

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솔제니친의 신념, 정체성이 온전히 분별되기 어렵다. 그래서 당대 정세하에서 추방된 솔제니친은 한국에서 박해받는 대표적 망명작가로서 게오르규처럼 반공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독자가 손쉽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솔제니친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이와 관련해 1975년 6월 30일 워싱턴 힐튼 호텔 연설과 1978년 6월 8일 하버드대학 졸업식 연설이 많이 회자되는데, 소련 해체까지 그가 미디어와 책을 통해 전달한 각종 정치발언이 모두 연설의 내용으로 환원된다. 여기에 그가 추방 전 공산당에 보낸 공개장(1973.9.5)을 함께 살펴보면 솔제니친의 정치적 입장이 더 분명해진다. 이를 통해 드러난 작가의 생각은 추방 이후부터 소련 해체시기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기 솔제니친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반공투사 중 한 명으로 현현한다.

먼저 공개장(1973.9.5)은 추방 이후 한국에 1974년 번역된 자서전에 수록되었다.³⁵⁾ 이 글에서 ‘중공과의 전쟁’과 ‘서구문명 및 소련의 동시 파멸’이 제기된다. 솔제니친은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해 중공을 적으로 만들었고 전쟁을 하게 되면 우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공에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진만을 지향하는 서구문명이 궁지에 몰려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소련이 이데올로기를 포기해야 하며 1917년 2월에서 10월까지 8개월의 민주주의 경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정교회의 강력한 모랄의 기초에 의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가구조와 이데올로기 체제의 변화 없이 소련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³⁶⁾ 소련 내에 있을 때 이데올로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충격적인 데, 중공과 서방, 그리스 정교회 인식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소련 추방 이후 외부에 구체화되어 표명되기 시작했다.³⁷⁾

35) 이 글은 자서전 외 신문, 『북한』 등에도 실렸다. 솔제니친, 「크레믈린 指導者에게 보내는 便紙」, 『북한』 29, 북한연구소, 1974, 64~71면 참조.

36) George Feifer · David Bury 共著, 盧瑞卿 · 윤호막 共譯, 『抵抗의 生涯 솔제니친』, 朝陽文化社, 1974, 394~407면.

37) 1974년 문단에서는 백낙청이 주목했다. 백낙청은 『문학과 행동』(1974)의 ‘문화와 정치현실’ 장에 솔제니친의 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를 게재한다. 이 글은 김수영을 떠올리게 하는 성격의 글이다. 솔제니친,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백낙청 편,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423~434면.

1975년 워싱턴 연설에서 솔제니친은 소련을 비인도적 이념, 억압정치, 대외간섭정책의 집단학살체제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데탕트 분위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소련의 화해 무드는 기만이며 군비 지출을 줄이려는 유럽과 미국의 무작정 양보 정책을 큰 실책으로 삼았다.³⁸⁾ 이와 같은 솔제니친의 강경 발언은 당시에는 오히려 서방 세계에게 부담이 되었다. 1970년대 접어들어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미국 역시 직접적인 전쟁과 갈등을 피하려 했다.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세계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미국과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한 소련 브레즈네프 정권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맞으면서 솔제니친의 맹렬한 반공 발언은 외교 문제로 다가왔다. 그래서 1975년 미소 화해의 파탄을 우려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의 권고에 따라 솔제니친의 백악관 면담이 거부되었고 케냐 정부 입국 금지 등³⁹⁾ 여러 일이 벌어졌다. 냉전시대에 강한 반공이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베트남 전쟁과 북한의 땅굴을 목도한⁴⁰⁾ 한국의 반공주의자는 데탕트가 싫은 상황에서 KGB음모를 폭로하는⁴¹⁾ 솔제니친과 같은 반체제 지식인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솔제니친의 연설을 번역한 번역자도 “솔제니친의 경고는 북괴의 적화통일야욕을 분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민족중흥과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 우리에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과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⁴²⁾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반체제적 반공주의자로 등장한 솔제니친을 이해하기 위해 접근할 때 소련 체제 붕괴 이전까지 가장 많이 회자된 연설은 1978년⁴³⁾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이었다. 소련과 평화공존의 태도를 취하는 미국에 대해

38) 알렉산더 솔제니친, 『美國에 警告한다』, 현대정치연구회, 1975, 8~42면; 이 연설은 다음의 곳에도 실렸다. 솔제니친, 「솔제니친, 第二의 對美警告」, 『북한』 통권 49, 북한연구소, 1976, 206~223면.

39) 「포워드, 솔제니친面談 거부 美·蘇 和解의 파탄을 우려」, 『동아일보』, 1975.07.04, 2면; 「솔제니친 政治發言 계속 受難」, 『경향신문』, 1975.7.28, 3면.

40) 이 책에서 솔제니친은 ‘골수반공주의자’로 명명된다. 저자들은 한국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멸공통일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정신무장하고 강력한 대비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金泰瑞, 金一平 共著,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三亞出版社, 1976, 111~121면.

41) 「솔제니친 KGB음모폭로」, 『경향신문』, 1974.06.01, 3면.

42) 알렉산더 솔제니친, 『美國에 警告한다』, 현대정치연구회, 1975, 2면.

43) 1978년은 파스테르나크의 연인 올가 이빈스카야의 회고록(1972)이 한국에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된 해이기도 하다. 그 안에는 솔제니친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올가가 파스테르나크의 노벨상과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이 이루어져 미국 지식인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화해무드를 역행하는 극단적 냉전주의자라는 비난이 거셌다. 솔제니친은 이때 반공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신적 위기, 도덕적 빈곤, 이기주의, 물질적 욕망 숭배 및 타락 등을 언급하며 서방세계는 자신의 조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⁴⁴⁾

당시 상황을 고려해 노희엽 교수는 “솔제니친이 미국인들의 정신결핍, 용기의 상실, 안일예의 지나친 탐닉, 그 결과 일어나는 서구의 약화 등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연설을 한 것은 미국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 충격은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것을 솔제니친의 지적으로 처음 알게 된 데에서 오는 충격이라기보다 솔제니친 같은 자유의 투사도 공산국가에서의 오랜 생활 때문에 자유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는 새로운 인식에서 오는 충격인 것 같다. 솔제니친이 미국에 온 뒤 텔레비전을 통하여 미국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과 대화만 자주 나누었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인 아치볼드 맥리시시의 말이라든지 솔제니친은 그 자신 하나의 완강한 독단론자가 되었다는 저술가 대니얼 부어스틴의 논평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⁴⁵⁾고 잘 정리해 전하고 있다.

관련된 내막을 고백하게 된 것은 솔제니친의 수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파스테르나크가 노벨문학상에 선정된 1958년에 솔제니친은 중학교 교사였다. 한 나라의 대표적인 문학자이자 세계적인 상을 받은 작가가 수상을 거부한 사건은 솔제니친에게 충격이었다. 솔제니친과 그를 추종하는 일원은 그 사건을 소련 인민의 굴욕과 굴종, 치욕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솔제니친이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을 때도 파스테르나크의 예를 들며 자신은 수상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상 거부는 사상과 정신의 포기이자 비굴함을 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71-1972년에 회고록을 작성한 올가는 1958년 노벨수상 거부는 사실 당국의 회유를 이겨내지 못한 자신이 파스테르나크를 대신해 한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녀는 당시 『닥터 지바고』(1946년부터 집필-1955년 완성, 1957년 출간) 수준의 소련 비판 소설을 쓴 사람은 파스테르나크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 엄혹한 시기에 파스테르나크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사후(死後) 문단에 등장한 솔제니친은 상대적으로 편한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올가 이빈스카야, 신정옥 역, 『라라의回想: 파스테르나크의戀人(下)』, 科學과人間社, 1978. 402~415면.

44) 솔제니친에게는 러시아 정교회의 검소와 절약이 있겠지만, 미국인에게는 근면과 성실의 청교도가 있다. 동부가 청교도의 경향이 더 짙고 이민자가 많은 서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할리우드가 있다. 이 때문에 기독교 국가의 미국인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고 솔제니친이 방송을 통해 접한 상업문화로 미국을 왜곡해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45) 「솔제니친 論爭」, 『동아일보』, 1978.06.29, 5면; 이 책에는 연설문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언론 및 지식계의 반응이 번역되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좋은 참조가 된다. A. 솔제니친, 로날드 버만 편, 박대진 역, 「연설문-갈라져 있는 세계」(하버드 대학 327회 졸업식), 『하버드의 솔제니친』,

솔제니친은 미국에서도 소련의 당대 최고의 망명작가이자 목숨을 걸고 당국과 싸운 양심적 지식인, 대표적 반체제 인사로서 이미 인정받는 인물이었다. 그런 세계적 저명 작가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인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 지식계의 “극단적 냉전주의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1980년 2월 타임지에 실린 「서방세계에 충고한다」에서도 공산주의를 전염병으로 지칭하고 지난 5년 동안 서방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해 왔다고 목소리를 냈다.⁴⁶⁾ 그 이후에도 솔제니친은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삶의 의미가 “영적 성장의 모색”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정신적 파탄의 원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⁴⁷⁾

이러한 일관된 정치적 태도 때문에 소련에서 부정되고 미국에서 비판받은 솔제니친의 국제적 상징성도 1980년대 후반 소련과 동구권의 정세 변화에 직면한다. 소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소련 문화계에서도 파스테르나크와 솔제니친의 복권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1986년 6월 개최된 소련작가동맹대회에서는 과거의 문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혁명가로 낙인찍힌 보리스의 전집 발간과 탄생 100주년 기념 박물관 건립 등을 논의했으며⁴⁸⁾ 1987년 6월 소련에서 처음으로 파스테르나크의 공식 추모제가 열렸다.⁴⁹⁾ 솔제니친은 1989년 7월 소련작가동맹에서 복권을 결정했으며 고르바초프에 의해 1990년 8월 15일 소련의 시민권이 다시 회복되지만 동년 12월 11일 당국이 공화국문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거부한다.⁵⁰⁾ 소련이 해체

홍성사, 1983, 19~43면.

- 46)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金京雄 역, 「西方世界에 충고한다」(80년 2월 18일자 특별기고), 『자유여 조국이여』, 범조사, 1981.06.10, 128~137면; “그가 그동안 서방세계를 줄기차게 비판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일은 중요하긴 하나 별로 놀랄 일이 못된다. 그의 논점은 썩 단순 명료하다. 서방세계가 소련을 승인하고 있음이 곧 소련체제를 돕고 있다는 논법이다. 그가 데탕트를 내세운 키신저를 공격하고 키신저가 그를 황제파라 하여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김윤식(서울대 국문학), 「솔제니친 文學人 여부에 엇갈린 評價」, 『동아일보』, 1984.04.10, 6면.
- 47)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양낙홍 역, 「현대인은 하나님을 잊었다」, 『서방세계에 대한 경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7, 155~161면.
- 48) 「蘇 文化界 解禁 바람」, 『동아일보』, 1986.8.6, 8면; 「파스테르나크 소련서 “복권”. 「닥터 지바고」 금서해제 검토」, 『조선일보』, 1986.7.2, 조건 4면.
- 49) 「蘇 파스테르나크 첫 공식추모」, 『동아일보』, 1987.6.12, 4면.
- 50) 「蘇 망명작가 솔제니친 러시아공문학상 거부」, 『경향신문』, 1990.12.12, 9면.

(1991.12)할 때까지 그는 극단적 반체제 반공주의자로 남았다.

요컨대 추방 이후 다수의 책과 발언이 번역 소개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었다. 『수용소 군도』에서 그가 스탈린을 비판하고 레닌을 일정부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감옥과 수용소에 갇히면서 소련 체제의 모순을 자각한 솔제니친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믿던 러시아 정교회의 정신과 윤리감각에서 사회변화의 윤리적 기초를 확인하게 된다. 즉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병동』의 소설가는 스탈린체제를 비판하지만 레닌은 지지하는 사회주의 인민이었다면, 추방 이후 솔제니친은 극렬한 반공주의자이자 타락한 세속주의를 멀리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러시아 정교회 신봉자의 모습으로 수용되었다. 추방 직전 소련 내에 있을 때도 이데올로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정도로 그는 용기 있는 강성 반공주의자가 되어 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솔제니친과 게오르규의 반공 이미지는 강화되고 라라의 주제곡이 떠오르는 ‘지바고’의 파스테르나크가 가진 반공의 상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반공 사상의 시대적 유효성이었다. 냉전 시대 미국에서 반공은 국민의 바람직한 가치관이었지만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극단적 반공의식은 오히려 부정되는 지성사의 장면이 펼쳐졌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한국은 데탕트를 경계하면서 살아 있는 반공의 교본이자 모범인 솔제니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1980년대 중후반에는 당시 맑스 이론에 경도되는 운동권 대학생들이 소련의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읽어야 하는 텍스트로서 솔제니친의 문학이 권장되기도 했다.⁵¹⁾ 이는 한국에서 영화 수입 상영 이후 ‘지바고의 사랑’을 다룬 대하 멜로영화로 수용된 『닥터 지바고』와 대별된다. 하지만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냉전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사회적 다원화를 지향하기 위해 한국에도 그동안 금기시되던 소련과 동구권 문학이 다수 번역 소개되었다.⁵²⁾ 이처럼 한국에서 반공의식의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솔제니

51) 예컨대, 서울대 손봉호 교수는 “오늘 이 위험하고 무서운 갈등에 휩쓸려 있는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본주의의 약점을 알고 비판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의 참 모습을 이 짧은 글들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양낙홍 역, 『서방세계에 대한 경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7, 13면.

52) 일리아 예렌부르크/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 『(소련·동구 현대문학전집9) 해빙/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외』, 중앙일보사, 1990.4.15, 10-11면; 김윤식, 『러시아文學 본격수용 80년대 후반부터』, 『경향신문』, 1992.01.13, 15면.

친의 소명과 상징성도 소련 해체와 함께 약화되어 갔다.

IV. 소련 해체, 러시아 귀환(1994)과 민족주의자

1991년 12월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산하면서 이념 및 체제 대결도 사실상 종식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대표적 반체제 지식인이자 반공주의자였던 솔제니친의 행보는 어떻게 나타나고 평가되었을까. 1991년 9월 17일 소련 검찰이 반역죄 기소를 취하해 솔제니친이 귀국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는 집필 중인 『붉은 수레바퀴』를 완결하고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⁵³⁾ 그가 귀국을 망설인 것은 조국의 정치지도자를 아직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있었다.⁵⁴⁾ 당시 솔제니친은 1992년 6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옐친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귀환을 권하고⁵⁵⁾ 1993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론조사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 추천 1위로 꼽힐 정도로 상징적 인물이었다.⁵⁶⁾ 그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정치적 견해는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솔제니친은 소련은 해체되지만 1991년 12월 옛 소련 11개 공화국들이 독립국가 공동체(CIS)를 조직하고⁵⁷⁾ 새롭게 재건을 시작하는 러시아의 현재를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미래를 꿈꿨을까.

솔제니친의 견해는 1994년 5월 러시아에 복귀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한국에도 알려졌다. 급격한 시장경제 도입과 자원 배분의 부작용으로 혼란스런 조국을 향해 솔제니친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고수를 러시아 의회에 촉구했다. 그는 “광대무변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러시아연방이 온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상에 치우친 민주주의만을 창조하려는 국민투표나 선거, 입법회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⁵⁸⁾ 이처럼 그는 옐친이

53) 「솔제니친 17년만에 고향길」, 『동아일보』, 1991.09.18, 4면.

54) 「솔제니친 “조국정치인 아직 못 믿어”」, 『경향신문』, 1992.05.23, 23면.

55) 「옐친, 亡命 솔제니친에 歸國권유 美서 직접통화…면담가능성도」, 『경향신문』, 1992.06.19, 17면.

56) 「솔제니친, 러대통령 추천 1위」, 『경향신문』, 1993.11.10, 17면.

57) 「독립국가 공동체협정」, 『조선일보』, 1991.12.13, 5면; 「국가공동체의 정치구조」, 『한겨레』, 1991.12.24.

러시아를 안정시켜 주길 바라지만 기대를 저버리자 1999년 12월 31일 옐친이 하야할 때까지 강한 반옐친의 입장을 취한다. 그는 극심한 경제난과 범죄 급증 등 사회 혼란이 공산주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일반 국민을 향해서는 도덕성만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욕망을 자제하고 스스로 이해관계를 도덕적 기준에 복속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⁵⁹⁾ 또한 그는 독립국가연합을 단명할 임시 체제로 바라봤다. 그는 벨라루스,⁶⁰⁾ 러시아, 카자흐스탄, 즉 슬라브 민족 중심의 통합을 원했다.⁶¹⁾ 이처럼 솔제니친은 슬라브권 한정 통합의 러시아 복원을 꿈꿨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했으며, 공산주의의 부활을 염려하고 절제를 강조하는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의 모습이었다.

이런 입장의 솔제니친의 1994년 러시아 귀국은 너무 늦은 귀환이었다.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열렬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가치관은 이미 때늦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오래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 사정을 잘 모른다는 비판이 일었다.⁶²⁾ 실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빈곤과 기아를 겪는 사람들은 생존을 걱정했고, 불공정 재분배로 재벌이 속출하며, 성의 대중상품화가 본격화된 시대에⁶³⁾ ‘욕망 절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1세기 전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러시아의 도덕적 정신적 최고지도자로 부각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한 여전히 반공주의를 강조하고 공산주의의 부활을 경계하는 그는 냉전시대의 전사, 냉전시대의 인물로 폄하되었다. 게다가 솔제니친은 국민을 러시아인과 비러시아인으로 구분하고 슬라브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나친 보수민족주의자, 파시스트, 국수주의자라는 공격이 가해졌다.⁶⁴⁾ 다민족국가이자 여전히 인접국에 헤게모니를 가져야 하는 러시아에서 독립국

58) 「강력한 대통령制 고수하라」, 『경향신문』, 1993.03.10, 17면.

59) 「인류의 道德性만이 세계 구원」, 『경향신문』, 1993.12.06, 5면.

60) 현재 벨라루스 공화국이다. 이곳의 수도인 민스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의 격전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 국가는 지리적으로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

61) 「러시아 정국을 보는 두 시각」, 『조선일보』, 1993.04.05, 4면.

62) 「너무 늦은 ‘솔제니친歸郷」, 『동아일보』, 1994.05.23, 5면.

63) 1991년 이후 러시아연방의 사회와 문화는 니콜라이V.랴자놉스키, 마크D.스타인버그, 조호연 역, 『러시아의 역사 (하)』, 까치, 2011, 929~1022면 참조.

64) 솔제니친은 애국자와 민주주의자가 욕설로 간주되는 사회현상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 그는 자신을 파시스트라고 비판하는 데 반발하기도 했다. “히틀러가 파괴하려 했던 그 국민을 ‘파시즘’ 국민으로 모욕하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그에게 “애국심은 국민을 통일시키며 결코 인류로부터

가연합 지원을 비판하고 ‘순수 러시아인’만을 강조하는 입장은⁶⁵⁾ 인권의 차원에서도 비난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푸틴에 대한 태도였다. 반엘친의 솔제니친은 1998년 12월 엘친이 러시아 최고훈장을 수여하려고 하자 러시아를 모라토리엄에 빠뜨렸다고 거부했다. 그런 그가 2000년 9월 20일 자택을 방문한 푸틴과 회담 후 새로운 지도자를 칭찬한다.⁶⁶⁾ 강력한 러시아를 외치는 푸틴과,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는 솔제니친이 공명한 셈이다. 그는 강력한 국가와 지도자를 푸틴에게서 발견했다. 그러나 푸틴은 솔제니친과 소련 국민을 탄압한 KGB(국가보안위원회) 출신이었다. 그럼에도 솔제니친이 푸틴을 인정하자 동료 지식인은 변절로 받아들였다. 1960년대 반체제운동의 동지였던 블라디미르 보이노비치는 솔제니친의 배타적 슬라브주의와 사형제 옹호, 언론을 탄압하는 권위주의적 푸틴 옹호 등을 지적하며 그가 비겁한 지식인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⁶⁷⁾ 이런 일이 벌어진 2002년부터 솔제니친은 칩거에 들어가지만 2007년 6월 푸틴이 러시아 국가문화공로상을 주는 것을 기쁘게 받았다.⁶⁸⁾ 그리고 이듬해 8월 그는 사망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솔제니친은 러시아에 귀국할 때부터 서서히 영향력을 잃고 러시아국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간 냉전시대 반체제인사이자 슬라브권을 강조한 러시아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그가 러시아와 세계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대문호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솔제니친의 생애와 작품을 잘 설명해 준 책들도 번역되어 한국 독자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⁶⁹⁾

분리되지 않는 근원이다. 소위 ‘국민적 애국심’ 개념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민족적 애국심’을 예외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민족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지금 나는 순수하고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러시아 애국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한남수 역, 『이 잔혹한 시대의 내 마지막 대화』, 디자인하우스, 1998, 216면, 224-225면.

65) 솔제니친은 옛공화국들이 민족을 강조하며 독립했는데 어려운 형편의 러시아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었다고 해도 러시아의 헤게모니 관리는 중요했다.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가 여전히 중요했고 각 지역에 따라 계획경제를 실시하던 경제시스템 붕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인접국간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헤게모니는 각종 차관이나 지원금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과 사회 안정, 민심 획득을 통해서도 강화된다는 점에서 솔제니친의 비판은 단선적이었다.

66) 「민족주의로 만난 솔제니친과 푸틴」, 『국민일보』, 2000.09.22.

67) 「배신자 솔제니친」 러시아 후배작가 직격탄, 『동아일보』, 2002.07.09.

68) 「푸틴 러 대통령, 솔제니친 깜짝 방문」, 『경향신문』, 2007.06.12.

탄생 70주년(1995)과 러시아 혁명 100년(2017)에 『수용소 군도』(6권, 열린책들)가 출간되기는 하지만, 한국 독자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1990년대 말부터 세계문학전집 붐을 일으킨 민음사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1998)⁷⁰⁾였다. 원제목에 ‘수용소’를 넣은 이 판본은 2018년에 ‘솔제니친 탄생 100주년 및 국내 출간 20주기’ 기념특별 양장 한정판으로 표지를 바꿔 간행되기도 했다. 이때 민음사는 이 책이 10만 부 이상 팔린 스테디셀러라고 홍보했다. 솔제니친의 소설 중 이 작품이 한국 독자에게 좀 더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베스트셀러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2009)와, 러시아문학 연구자이자 서평가 이현우의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2017)에 포함된 이유도 있다.

1985년 26세의 나이에 영등포 구치소 독방에서 이 소설을 접한 유시민은 소설의 식사 장면에서 ‘정치군인과 싸우던 자신이 배고픔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서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슈호프가 열심히 벽돌 쌓는 작업을 하는 대목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는 큰 감명을 받았다. 이 장면은 이 소설을 평가할 때 누구나 회자하는 인상적 대목이기도 하다. 유시민은 슈호프를 수용소에 가둔 소련 정치체제와 권력자들에 억누르기 어려운 적개심을 느꼈다고 토로하면서도 단순한 반공소설이 아니라고 회고했다.⁷¹⁾ 1990년대 초 이 작품을 읽은 이현우는 솔제니친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바라본다. 원시기독교적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인물인 데 자유진영에서 반공주의자로 탈바꿈시켜 받아들였다는 게 그의 평가다.⁷²⁾ 그러나 본고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유진영의 조작으로 간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소련 해체와 함께 냉전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반공-분단국인 한국의 현재 독자는 이 소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인터넷서점 yes24의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제 수용소에 관한 글이나 영상을 보고 있자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69) 쵸베토프, 김태연 역, 『솔제니친: 역사를 바꾼 문학의 창조자』,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에드워드 J 브라운, 김문황 역, 『솔제니친과 수용소 서사시』, 『현대 러시아 문학사: 침묵과 저항』, 충북대학교출판부, 2012, 438~510면.

70)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영의 역, (민음사 세계문학전집13)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민음사, 1998.

71) 유시민, 『청춘의 독서: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웅진지식하우스, 2009, 182~199면.

72) 이현우,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 현암사, 2017, 221~222면.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여러 생각이 든다. 평화 시대에 태어나 이런 환경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삶의 의지가 흔들거리는 나의 촛불 같은 의지가 한 없이 부끄러워지는 책이다. (2) 어쩌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지금 많이 추워도 곧 해가 뜰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당신만 추운 게 아니라는 메시지는 어떤 온기를 주는 듯하다. 수용소에서 강추위를 직접 겪은 이의 메시지라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3) 누군가에게는 매일 매일이 삶의 투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작품 (4)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사형수가 제일 불행할 것 같은데 ……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인생이란 참... 정말로 모르지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5) 처음 구매 당시엔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히틀러가 만든 수용소의 내용일거라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소련에 있던 수용소의 내용이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몇 십 년 후의 전혀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나도 그 당시의 생생한 참상을 알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6) 러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 소설을 통하여 그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7) 주인공의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그려내는 고발문학이다. 하지만 너무 무겁거나 우울하지는 않음. 뭔가 운수좋은날 같은 느낌이 들었음. 열악하고 비참한 현실에 우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만한데 여기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음. 그래서 더 비극적이고 슬프게 느껴졌음. (8) 문체가 옛날방식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약간의 조소가 나올 정도로 유쾌한 서술방식 때문에 그런가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보여지는 것만큼 암담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반 테니소비치의 수용소에서 하루가 정말 노련하고 충만해서, 그래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벼운 생각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내게 와 닿는 게 없었다. 그나마 작가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면보다는 수용소 내 인간군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죄수들의 생활이 안타깝고 불쌍하긴 했다. 다만 다양한 인간군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볼코보이 같은 간수들을 더 깊이 보여주지 않은 것과 독방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랬기 때문에 참혹함이 덜했다. 혹독한 배경에 걸맞은 비참한 수용소 내에서의 하루는 절대 아니었다. 독자 입장에서는 확 와 닿는 무언가를 더 원했는데 아쉬웠다.”

이 댓글을 보면 이 소설은 과거가 되어버린 소련의 단면을 알게 해주는 역사물과 다름없었다. 문제는 독서효과인데, 한 독자는 한국소설 「운수 좋은 날」처럼 느꼈다.

이는 번역자 김학수가 “무슨 비극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하루가 아니라 반대로 ‘재수가 썩 좋은’ 하루의 생활을 유모어가 풍기기까지 하는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절망과 기아와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처참한 수용소생활을 해학이 섞인 가벼운 솜씨로 다루고 있다는 데 이 작품의 특징이 있다.”⁷³⁾고 한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설정이 수용소 생활을 더 비극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작가의 주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8)처럼 생각보다 잔혹하지 않아서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는 독자도 있었다. 이 독자 반응과 마찬가지로 솔제니친의 (의도치 않은 긍정적인) 수용소 이미지와 재현 방식이 불만이었던 당대 소련작가 바를람 살라모프는 수용소는 부정적일 뿐이라며 유명한 『콜리마 이야기』를 썼다.⁷⁴⁾ 그러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반공이나 소련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독해되기도 했다. 독자는 수용소의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매일 힘들게 버티며 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냉전이 끝난 시대에 이 소설은 반공역사물이 아니라 ‘삶의 투쟁과 의지, 행복’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작품으로 재해석된 것이다. 솔제니친 소설의 가치와 유통기한은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동하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V. 나가며

솔제니친은 1963년 최초 번역 소개된 이래 2008년 사망할 때까지 한국에 그 동향이 지속적으로 소개된 이례적인 작가였다. 197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1974년 추방된 소련의 반체제 작가라는 이력이 반공-분단국가인 한국 사회와 오랫동안 공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은 그의 작품은 한국에서도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이전 그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병동』의 작가였는데, 수상 이후 나온 『수용소 군도』가 오히려 그의 대표작으로 추앙되었다. 한국에서도 1999년 연말에서 뽑은 <20세기의 명저 100선>에 『수용소 군도』가 들어갔다.⁷⁵⁾ 추방 전후를 경계로 『수용

73) 김학수, 「소련 문학계의 새 소동 -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솔제니친」, 『사상계』, 1963, 377면.

74) 바를람 살라모프, 이종진 역, (을유세계문학전집76)『콜리마 이야기』, 을유문화사, 2015.

소 군도』가 나오면서 솔제니친은 소설가에서 기록문학자로 문학적 성격이 확연히 바뀌어 인식되기 시작했다. 『수용소 군도』는 ‘스탈린 개인숭배론’의 인식을 넘어 레닌을 포함해 소련 체제의 근본적 폭력성을 고발하는 상징성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솔제니친은 전생애를 걸쳐 혁명 이전의 『붉은 수레바퀴』, 1950년대 초중반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암병동』, 혁명 이후부터 1956년 무렵까지 『수용소 군도』를 통해 ‘수용소 백과사전’이자 국가폭력의 소련사를 독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추방 이후 작가의 직접 발언이 공개되면서 독자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작품보다는 ‘발언’을 통해 그의 정치적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강한 반공은 데탕트 시대에 오히려 부정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가 1945년 체포 이전에는 레닌주의자, 체포 이후 추방 이전에는 도덕적 사회주의자, 추방 이후에는 극렬 반공주의자, 소련 해체 이후에는 국수주의자 및 민족주의자의 성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추방당하지 않는 사회를 누구보다 꿈꿨을 그가 ‘조국의 생존과 부강, 신사회 건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또 다른 추방과 분리를 이야기했다. 반체제의 그 역시 민족을 경유하지 않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솔제니친 텍스트는 시대적·정치사상적 맥락에 따라 대단히 상징성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초기에 파스테르나크의 위상에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1968년 영화 <닥터 지바고>가 한국에 수입 상영될 때는 영화가 대하 멜로드라마적으로 인식돼 반공의 효과가 떨어져 솔제니친이 파스테르나크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는 게오르규와 함께 대표적 반공작가로 인식된다. 흥미로운 점은 솔제니친이 반체제 작가였다는 것은 반공뿐만 아니라 반정부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군부 정권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잘 알려진 대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낡은 사회를 어둡게 그렸다는 이유로 영화 <오발탄>이 상영 중지되고 1960년대 중후반 <7인의 여포로>, <휴일> 등이 검열되었다. 게다가 솔제니친이 본격 소개된 1970년대 초는 중앙정보부의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1973) 등이 있었다. 솔제니친이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동시대 한국 정권의 탄압을 연상시키지만 군부(독재)체제의 억압성을 환기하는 소재로는 이용되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반공작가였던 것이다.

75) 「20세기를 기록한 책 100권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레』, 1999.12.31, 20면.

그의 텍스트의 평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기록문학들은 독자의 엄청난 문해력을 요청했고 문학성도 논란이 있었다. 가령 국문학자 김윤식은 그의 기록문학의 문학성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⁷⁶⁾ 대중적으로는 기록문학이 아니라 중편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가 여전히 한국에서 대표작이었다. 특히 엄혹했을 수용소에서 주인공 슈호프가 보여주는 ‘긍정의 힘’은 반공 및 반체제의 독서효과를 넘어섰다. 소련 해체와 이념갈등이 일단락된 지금의 한국에서 이 소설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독자 자신의 모습, 긍정의 사유와 강인한 의지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작품으로도 수용될 수 있었다. 수용소와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롭지만 평등과 공정성이 좀 더 요구되는 사회에서는 이념 대결이 종결되었어도 미래 사회를 위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할 때 여전히 사회주의 사상과 체제 혹은 혁명적 연대의 기억과 감수성이 참조의 대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텍스트를 보면 『암병동』에서 병원은 수용소 내 병원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환자들은 진단과 입원, 치료 등을 무료로 받는다. 일반인에게는 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사회주의 체제하면 많이 언급되는 평생 직장, 무상 의료, 국가 보육, 무료 주택 등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에게 매력적이다. 이처럼 솔제니친의 세계는 관료적이고 계층적인 소련 국가의 성격을 드러내는 ‘수용소 문학’으로서 반공 및 반체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서도 사회주의 사회의 텍스트로서 사회주의 시스템의 일부 이점을 의도치 않게 환기하는 역할을 하며 자본주의 국가 한국에 수용되고 있다.

투고일: 2020.07.19

심사일: 2020.08.27

게재확정일: 2020.09.07

76) “그는 많은 기록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기록문학인 셈이다. 기록이라 해도 작가의 자의적인 생각이 작용할 것이라면 역사가 쪽에서 볼 때 그런 기록은 한갓 주관적인 아마추어리즘으로 보일지 모르며 순정한 상상력에 의존하는 문학쪽에서 본다면 그 역시 한갓 아마추어리즘에 지나지 못할지 모른다. 그의 작품에 울림이 없다면 솔제니친은 위대하지 않고 다만 그의 기록이 위대하다고 말해진 것은 이 탓이리라. 그가 지나간 러시아어를 공들여 모아 사전을 만드는 일도 기록문학이 지닌 취약점을 메우기 위한 한갓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자기를 예술가(문인)로 취급해주지 않는다고 그가 불평을 토하는 것은 일종의 과욕이 아닐까.” 김윤식, 「솔제니친 '文學人' 여부에 엇갈린 評價」, 『동아일보』, 1984.04.10, 6면.

참고문헌

『경향신문』
『국민일보』
『기독교사상』
『동아일보』
『북한』
『사상계』
『조선일보』
『한겨레』
yes24

- 솔제니친, 박형규·김학수·이동현 역, 『노오벨賞文學全集12,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편』, 新丘文化社, 1971
- 솔제니친, 김학수 역, 『세계문학전집35.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단편·희곡』, 평범사, 1985
- 솔제니친 알렉산드르, 정장진 역, 『붉은 수레바퀴: 1916년 11월①』, 열린책들, 1986
- 솔제니친 A, 한영탁 역, 『女人과 因人』, 芸文관, 1974
- 솔제니친, 朴炯奎 譯, (韓國文學1976년10월호 別冊附錄)『송아지 떡갈나무에 반하다 : 솔제니친 自敘傳』, 한국문학사, 1976
- 솔제니친, 박형규 譯,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 三中堂, 1975
- 솔제니친, 李鍾泰 譯, (世界文學大全集120)『癡病棟』, 金星出版社, 1990
- 솔제니친. 오재국 역, 『(三省版) 世界現代文學全集 8. 암병동』, 삼성출판사, 1988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著, 金鶴秀 譯,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 思想界出版社, 1963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美國에 警告한다』, 현대정치연구회, 1975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외대교수), (월간중앙 9월호 부록)『1914년 8월』, 중앙일보사, 1971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著, 李鍾鎭 譯, 『第一圈』, 서울 : 분도출판사, 1974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金京雄 譯, 『자유여 조국이어』, 범조사, 1981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양낙홍 역, 『서방세계에 대한 경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7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 『수용소군도』(1973) 6권, 열린책들, 1995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영의 역, (민음사 세계문학전집13)『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민음사, 1998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한남수 역, 『이 잔혹한 시대의 내 마지막 대화』, 디자인하우스, 1998
-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동현 역, (문예출판사 세계문학24)『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문예출

판사, 1999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 (Mr. Know 세계문학 41)『수용소 군도』, 열린책들, 2007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윤희 역, 『마뜨료나의 집』, 인디북(인디아아이), 2013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홍가영 역, (홍신 세계문학18)『암병동』, 홍신문화사, 2015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영의 역, 『암병동』1,2(1968), 민음사, 2019

일리아 에렌부르크/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김학수 역, 『(소련·동구 현대문학전집9) 해빙/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 외』, 중앙일보사, 1990

파스테르나크/솔제니친, 이동현·오재국 역, 『世界の文學大全集, 醫師 지바고·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同和出版公社, 1971

A. 솔제니친, 동완 역, 『암병동』, 홍익출판사, 1970

A. 솔제니친, 장행훈 역, 『지하작가 - A. 솔제니친 문학자서전』, 문조사, 1976

A. 솔제니친, 노랄드 버만 편, 박대진 역, 『하버드의 솔제니친』, 흥성사, 1983

A. 솔제니친, 김학수 역,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 일거요약전제」, 『사상계』, 1963

George Feifer, David Bury 共著, 盧瑞卿·윤호막 共譯, 『抵抗의 生涯 솔제니친』, 朝陽文化社, 1974

Solzhenitsyn, Aleksandr, 박형규·김학수·이동현 역,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 외』, 신구문화사, 1966

Solzhenitsyn, Aleksandr Isaevich, 장익 역, 『솔제니친의小品과 외침』, 분도출판사, 1973

Solzhenitsyn, Aleksandr Isaevich, 김학수 역, 『收容所群島』, 한얼문고, 1974

Solzhenitsyn, Aleksandr, 김학수 역, (正音文庫51)『솔제니친 短篇集』, 正音社, 1976

金泰瑞, 金一平 共著,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三亞出版社, 1976

니콜라이V.라자놉스키, 마크D.스타인버그, 조호연 역, 『러시아의 역사(하)』, 까치, 2011

리영희, 「소련 반체제 지식인의 유형과 사상」(1975), 『리영희저작집2, 이상과 이성』, 한길사, 2006

바를람 살라모프, 이종진 역, (을유세계문학전집76)『콜리마 이야기』, 을유문화사, 2015

백낙청 편, 『문학과 행동』, 태극출판사, 1974

에드워드 J 브라운, 김문황 역, 「솔제니친과 수용소 서사시」, 『현대 러시아 문학사 : 침묵과 저항』, 충북대학교출판부, 2012

올가 이빈스카야, 신정옥 역, 『라라의回想; 파스테르나크의戀人(下)』, 科學과 人間社, 1978

유시민, 『청춘의 독서 :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웅진지식하우스, 2009

이현우,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20세기』, 현암사, 2017

쯔베토프, 김태연 역, 『솔제니친: 역사를 바꾼 문학의 창조자』,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이행선,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 지식사의 '25시'-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이행선·양아람,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한국적 수용과 ‘닥터 지바고’-노벨문학상, 솔제니친,
반공주의, 재난사회』, 『정신문화연구』 14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The Translation Acceptance of Alexander Solzhenitsyn(1918~2008) and the Anti-Communist, Cultural Cold War and Ethnic

Lee, Haeng-seon

The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iachronic acceptance history of Solzhenitsyn (1918-2008), one of the best writers of the Soviet Union in the 20th century. Solzhenitsyn is considered one of the leading antiestablishment writers of the Soviet Union after World War II, along with Boris Pasternak(1890~1960), author of Doctor Zhivago(1957). Threatened by the Soviet authorities, Pasternak rejected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1958), and Solzhenitsyn did not give up the Nobel Prize (1970), but only four years later he was able to win a prize. This history has been used as a useful asset of the global cultural cold war. How was Solzhenitsyn accepted in the anti-Communist and divided South Korea? In short, this article is a project of translation culture history to look into diachronic acceptance history, in which Alexander Solzhenitsyn is known in Korea from 1962 to the 2010s.

Key Words :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Boris Pasternak, Anti-communism, Cultural Cold War, Nationalism

